

9장 갈릴리 포로를 회복하는 기묘한 모사

9장에서 급격한 단절이 나타난다. 왜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다. 흑암에 있던 자들이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취셨다는 식의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더 큰 어둠에 쫓겨 가게 하신 일이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취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구원을 얻은 모습이 나온다.

1. 갈릴리에서 일하시는 기묘한 모사 (9:1-7)

1) 갈릴리에서 일하심 (9:1-5)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있고, 이스라엘 골짜기와 요단 건너편의 길르앗이 여기에 해당한다. 732년경에 앗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을 놓고 이렇게 기록한다.

그런데 그 땅에 큰 빛이 비쳤다고 하면서 승리로 말미암은 기쁨을 말한다. 마치 미디안 때에 기드온의 지도 아래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지파 사람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삿 6:35; 7:23), 같은 지역에 있는 갈릴리 지역 사람이 추수 때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였다. 전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탈취를 당했는데 이제는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기에서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함으로써, 자기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의 중심에 계심을 명백히 밝혔다.

2)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9:6-7)

6절에서는 장면이 완전히 바뀐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옷을 다 태워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주실 분이라면 위대한 장수일 것으로 기대하게 되지만, 선지자는 이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하고 말한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는 먼저 왕의 성격을 네 가지로 노래한다. 첫째,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 이시다. 왕이라면 가까이 좋은 모사를 두어야 하지만, 이 아이는 왕이면서 동시에 본인이 기묘한 모사이시다. 둘째,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시다. 여기에서 “전능하신”이라는 말의 원어는 강하고 힘이 세다는 말이다. 3-5절에 나오는 군사적인 일들을 다 수행하실 분이시다. 앞서 7:14에서 임마누엘이 약속으로 주어졌다. 아이가 태어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게 되는데, 그 약속하신 임마누엘이시다. 셋째,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시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아버지이다.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곧 하나님이시다(참조 사 63:16). 끝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 이시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과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나, 새로 약속된 임금은 그 백성의 마음을 죄악 된 데서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도록 하실 분이시다.

2. 하나님의 표준으로 잴 (9:8-21)

9:8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배경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다. 9:8에서 10:4까지 나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에서는 네 번의 후림이 나온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고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9:12, 17, 21, 10:4).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9장의 앞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였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앞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 안에서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 심판은 구원의 약속과 함께 오는 심판, 혹은 징계이다.

1) 교만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9:8-12)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그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신다.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벽돌들이 무너지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외적이 침입하였다. 그러한 지진이나 외적의 침입보다 무서운 것은 그들이 여호와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교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근거가 없이 낙관적이 되며, 큰말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

2) 교만과 아첨에 대한 심판 (9:13-17)

둘째로 지적하는 것은 교만과 아첨에 대한 심판이다. 교만한 지도자는 사람의 반응을 보고 아첨하는 사람을 중용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도자를 모두 한낱에 없애신다. 머리와 꼬리, 큰 종려가지와 갈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을 말함으로써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법이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꼬리라고 표현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마치 개가 꼬리를 살살 흔들듯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준다. 이러한 종교인을 꼬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한낱에 없애실 것이다.

지도자들만이 그릇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그 아첨에 빠진 지도자들과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선지자들에 미혹되어 모두 함께 그릇된 길로 갔다.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악해졌다.

3) 증오와 살인에 대한 심판 (9:18-21)

셋째는 증오와 살인에 대한 심판이다. 악행이라는 불이 나와서 질려와 형극을 태운다. 더 큰 악이 와서 작은 악을 삼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동시에 악행으로 태우는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불이다. 하나님께서 큰 악행이 그 사회를 다 휩쓸도록 하신 것이다. 큰 악행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훨씬 더 살기가 어렵게 된다.

여기에서는 특히 형제간에 싸우는 것을 그 예로 든다. 형제가 형제를 먹어도 배가 차지 않을 정도인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안에서 각 지파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먹을 것을 놓고서 서로 싸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형제로서 요셉이 각각 오른손과 왼손으로 잡고 야곱에게 나갔던 자들이다. 그런데 한 형제인 둘이 서로 물어뜯으면서 싸운다. 그들이 연합하여 다른 형제인 남유다를 치려고 한다.

9장 익힘 문제

1. 1) 다음 말씀에 해당되는 지역의 이름을 1절에서 찾아 쓰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2)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6절)

3) 그 아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6절)

2. ‘평강의 왕’ 으로 오실 분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무엇으로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까? (7절)
3. 여호와께서는 교만하고 완악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누구를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2절)
4.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와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머리는 누구이며 꼬리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5절)
5. 이스라엘 안에 특히 형제간에 싸우는 악행의 모습은 그들이 여호와와 진노 아래에 있음을 뜻하는데 형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18-21절)